

양서 보급과 독서운동으로 지역문화 선도

무료 도서 배포 · 동화구연 강의... 늘 새로운 책으로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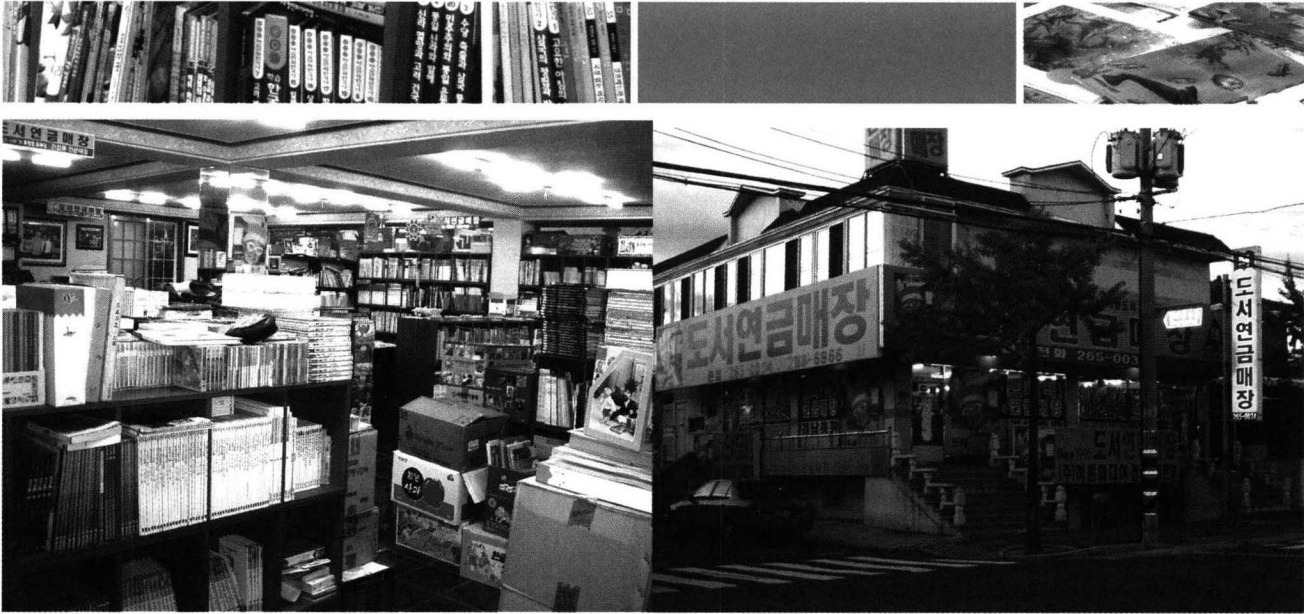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 자리한 '창원도서연금매장'은 좀 특이한 서점이다. 100평 규모의 3층짜리 건물 1층 매장은 늘 어린이와 부모들로 붐빈다.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는 연금매장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시뭇 이례적인 모습이다. 평일 오후에도 독서삼매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주말이면 아예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책을 읽는 아이들 때문에 이곳이 서점인지 도서관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다.

책 읽는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매장

8살 민정이의 손을 잡고 온 김현아(37세) 씨는 "주말이면 아이가 책 읽으러 가자고 하도 즐라서 아이를 데리고 자주 온다"고 말했다.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고, 늘 새로운 책을 볼 수 있으니 까 아이가 좋아해요. 전집류는 아이가 원하면 사주기도 하는데 일반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값이 싸 부담이 덜합니다."

창원도서연금매장은 그러나 책을 파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에 '책의 향기'를 퍼뜨리는 데 누구보다 앞장 서온 곳으로 유명하다. 해마다 '무료 책 증정 행사'를 열어 6,000~7,000권의 책을 창원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고, 매장이 운영하는 창원도서연금매장 문화센터에서는 부모들을 위해 '무료 동화 구연 강의'도 열고 있다. 이를 위해 일주일에 2~3차례 구연동화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곤 한다. 또 도서관이나 학원, 병원 등에 기증한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책들로 바꾸어 준다.



창원 연금매장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홈페이지처럼 늘 새로운 책으로 매장을 꾸민다. 사진은 창원 연금매장 내부(왼쪽)와 전경(오른쪽)

‘책에 사람의 희망이 있다’

이쯤 되면 이 매장을 이끄는 김동우 대표(43세)의 경영 철학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윤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많은 이들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책에 사람의 희망이 있으니까요.”

1992년, 별도의 연고지도 없는 이곳 창원에 내려와 경남 일대에서 가장 큰 도서연금매장을 일구어낸 김 대표이지만 매장 운영에 관한 그의 원칙은 의외로 단순하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드는 것.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경영 원칙을 오롯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창원과 마산 일대의 독서운동을 선도하는 서점으로 입

INTERVIEW ‘책에서 사람의 희망을 본다’

‘문화강좌 등으로 지역민에게 문화적 혜택’

창원도서연금매장 김동우 대표, 제20회 ‘책의 날’ 출판유공자상 수상



창원도서연금매장 김동우 대표(43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와 달리 단호하고 열정에 넘쳤다. 1983년 스무 살의 나이로 삼성당에 입사해 영업부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1992년 연고지도 아닌 창원에 내려와 경남의 대표적인 서점으로 매장을 키워내기까지 그의 저력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딸 셋을 키우며 책이 주는 ‘귀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독서문화가 그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는 결론을 내린 김 대표. 지금껏 그가 펼친 독서운동과 독서캠페인은 그를 단순히 ‘지역의 서적상’이 아닌 ‘지역 문화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지난 10월 11일 있었던 ‘제20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그가 받은 출판유공자상은 그래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출판유공자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양서를 보급하고 독서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데 지역의 독서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 또한 딸 셋을 둔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책이 주는 귀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디어가 주는 단세포적인 감각에 젖어있는 아이들이 걱정스러웠다고 할까요. 책에서 사람의 희망을 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바보상자 앞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매장에 와서 책을 사서 읽지 않더라도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히 독서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도서관이나 학원 뿐 아니라 병원 같이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책을 무료로 증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뜻을 알아주는 분들이 많고, 호응도 좋아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실 창원 인근에서 김 대표는 창원연금매장의 경영자라기보다 '독서운동을 하는 서점 대표'로 더욱 익숙하다. 그가 펼치는 독서운동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지난 10월 11일 '제20회 책의 날'에는 출판유공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책이 놓는 '사람 사이의 길' 언제나 열려둬

언뜻 보기에 창원연금매장의 겉모습은 평범 그 자체다. 건물의 1층은 매장이고, 지하는 창고로 쓰인다. 주로 취급하는 것은 아동 도서와 전집류. 창원 인근에서 가장 큰 매장인 만큼 일반 고객 외에 소매서점이나 출판사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는 것도 그리 특별할 것도 없다.

그러나 매장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 40억원 어치의 도서는 그렇게 평범하지 않다. 책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책들이 모두 '흐른다'(flow)는 점 때문이다. 흔히 전국 각지의 연금매장의 책은 유통상의 문제로 고인 물처럼 보관만 되고 새로운 책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창원연금매장은 마치 매일 업데이트되는 홈페이지처럼 늘 새로운 책으로 고객을 맞이한다.

매장 직원도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른 곳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들 역시 김 대표처럼 그 '마인드' 자체가 책과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 7명의 직원 중 한 명만 빼고는 김 대표가 매장을 내면서부터 함께 일해 온 사람들이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직원이라고 해야 7년차인 김 석 부장이다. 김 부장은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하고 독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가끔 학부모들이 지나가다 들러서 음료수 같은 것을 사주실 때가 있어요. 책을 읽기 싫어하던 아이가 이곳의 책을 읽고, 책에 대한 흥미를 붙였다며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 대표에 그 직원'이라고 해야 할까. 다들 김 대표 이상으로 지역의 독서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꽂차 있다.

김 대표는 "책이 놓는, 사람 사이의 길이 언제나 열려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서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어린 시절의 독서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딸 셋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삶의 길을 발견하고, 영혼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

취재_이주연 기자 | 사진_창원도서관매장 제공

복스타트 운동 외에도 매장 근처에 문화센터를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서문화는 그 지역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하지만 독서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크게 신장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보급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나 학원, 병원 등에 기증한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새로운 책들로 바꾸어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매년 6,000~7,000권의 책을 행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책을 나눠주다 보니 의외로 부모님들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싸게 산 전집을 집에서 방치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매장 근처에 문화센터를 만들고, 그곳에서 구연동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구연동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동화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강의합니다. 강의를 들은 부모님들이 효과적으로 동화를 읽어주고, 아이들은 그 동화를 듣고 보다 큰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독서문화가 향상되는 것이 제가 느끼는 보람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출판계에 바라는 점은...

내년 초에 박람회를 크게 열 계획입니다. 예전에 1,300평 규모의 박람회를 연 적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박람회를 열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파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지금하고 있는 독서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저와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출판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더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된 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동서들의 종류는 많아졌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큰 발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질적인 풍성함을 갖춘 책들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때 책의 판매도 늘어나고 소비자의 인식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좋고, 그림도 좋은 책들이 출간될 때 출판문화의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유통 시장의 안정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똑같은 책을 누구는 만 원에 팔고 누구는 팔천 원에 판다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출판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취재_이주연 기자